

9

창고 관리업무에서 발생한 소세포폐암

| | | | | | | | |
|----|---|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|
| 성별 | 남 | 나이 | 69세 | 직종 | 서고 관리직 | 직업관련성 | 낮음 |
|----|---|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--|----|

1 개요

근로자 박○○은 1975년부터 창고 관리업무를 하다가 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았다.

2 직업력 및 작업환경

근로자 박○○의 근무 장소는 서적을 보관하는 창고이고, 서적을 보관하는 선반과 책이 정렬되어 있었으며, 이 곳에 발생하는 유해인자는 종이분지와 온, 습도에 의한 미생물이었으나, 창고가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환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노출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.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
과거력상 40년 전에 폐결핵 완치력이 있으며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, 2000년 10월말경 몸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중, 폐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권유받고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소세포 폐암(small cell lung cancer)으로 확진되어 현재 21일 간격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고 있다.

4 고 찰

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장 내 원인물질로 종이분진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펄프 및 제지 공장에서 폐암의 발생률 또는 사망률의 증가를 보고한 연구보고들이 종이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sulfur and chloride compounds나 wood dust와 같은 제지 공정상의 유해물질에의 노출뿐만 아니라 석면사용 및 흡연습관이 함께 동반되었을 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본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.

5 결 론

박○○이 근무하였던 서적보관 창고에서 폐암 유발인자로 의심되는 유해인자인 종이분진이나 미생물에 대한 노출력이 거의 없으므로 업무상질병의 가능성이 낮다.